특집

□ 低油價時代 □

原油価 하락의 実像

네트백 方式이 의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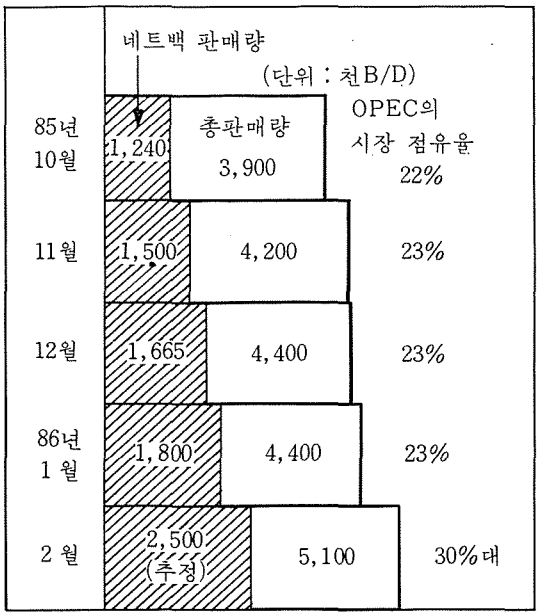
네트백 方式이라는 새로운 原油가격 결정 방식이 세계원유시장에서 크게 두각되면서 가격붕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이 方式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 이란, 이라크, 카타르 등이다. 그중에서도 사우디는 작년 10월에 네트백 方式을 歐美 석유회사에 처음 적용하면서 원유생산량을 크게 회복시켰으며, 금년 2월부터는 極東지역 물량에 대해서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의 네트백적용原油는 歐美지역 물량이 180만B/D정도이며, 極東물량은 100만B/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제품가격에서의 정제비와 수송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네트백 方式은 歐美수출 물량의 경우 로테르담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유가격을 선적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공급과잉시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極東지역 수출 물량에 대해서 GSP(공식판매가격)를 포기하고 네트백制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가격인하의 새로운 방법을 채용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日本의 경우 D-D(직접거래)분으로서 네트백方式에 의해 三菱상사가 10만B/D 계약한 것을 비롯해 共同石油 7만B/D, 마루베니 상사 5만B/D가 각각 결정되었다. 네트백은 LPG에서 重油까지의 제품생산수율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LPG 사용량이 많은 유럽이나 중유비율이 높은 日本에서는 이들 유종의 가격 상하에 의해 네트백 가격도 달라진다. 1월말 로테르담시장의 평균 네트백 가격은 20달러선이다. 사우디는 이밖에 네트백 가격으로 사우디 석유화학 관련업계에 9만B/D를 공급하는 한편 안부와 주베일 정유공장 건설에 참여한 모빌과 셸에 각각 17만B/D, 12만B/D씩 인센티브 원유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 물량도 日本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日本 도입물량은 50만에서 많으면 75만배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先物市場価格 주도

OPEC 특별위원회가 생산 상한선을 1천600만B/D에서 더 증가시키기로 결정한데 영향받아 北海 브렌트油는 한때 15달러대로 떨어지고, 두바이油

사우디 아라비아의 생산량 추이



도 급락했다. 이것은 유럽과 美國의 선물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가격인하를 가속화시킨 것이며, 이러한 선물시장의 시황을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물시장은 Paper deal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확실한 물량이 있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수십명의 무역업자가 전화 한대로 거래하는 예가 흔히 있으며, 스파트 시세에 영향을 끼친 한척분의 선물거래에 30여명이 넘는 무역업자가 개입한 예도 있어서 일종의 money game을 연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파트 가격 연동에 의한 월말 가격결정 방식을 채택한 오만은 1월 DD분을 3달러나 인하하여 23.83달러로 결정했다. 금년부터 오만方式을 도입한 아부다비는 1월 가격을 마반 원유의 경우 24.95달러로 책정했다. 이러한 스파트 연동가격이 중동원유의 실세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멕시코는 GSP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최근 평균 4달러를 인하하여 전유종의 평균가격은 19.75 달러가 되었다. 이는 중동원유가격의 하락 기대감을 인식한 단호한 가격인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市場原理의 작용

사우디 아라비아가 極東지역 물량에 대해서도 네트백 方式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2월 인도분의 중동원유가격은 3～4달러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의 가격정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부다비, 이란, 이라크 등도 구체적인 가격결정 교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산유국이 보다 유연한 가격설정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금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力學관계를 배경으로 한 시장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작년 10～12월에 3개국의 스파트 가격에 의한 바스켓 방식을 택한 이라크의 홍해 인도물량은 1월이후 어떤 방식을 채용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경우 日本의 昭和셸과 싱가포르시장 가격을 기초로 한 네트백 방식에 의한 가격결정 방법을 교섭해 왔으나, 중단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4월전에 새로운 가격결정 공식을 만들 예정이다. 앞으로 中東원유 가격은 사우디의 네트백 가격을 주축으로 변동할 것 같다.

사우디와 英國의 합의가 문제

폭락하는 原油가격의 행방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우디가 北海원유를 생산하는 英國을 항복시킬 때까지 원유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견해가 나돌고 있다. 이것은 北海원유를 재개발할 수 없도록 가능하면 빠른 기간에 700만배럴까지 생산을 확대하여 가격을 더욱 낮춰 재투자 의욕을 상실케하고 선진제국들이 시도하고 있는 신 에너지 개발속도를 일시적으로 늦추게하여 원유가격 결정권을 재장악한 다음 일시에 감산을 단행 새로운 가격체계를 구축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北海원유는 실세가격으로도 10달러대가 되면 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진다. 생산을 중단해야만 하는 광구도 나올 것이나, 일시 중단하면 재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하는 편이 낫다고 한다. 그러나, 사우디가 네트백方式을 보다 확대하고 영국과의 사이에 감산 합의를 보지 못하면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실세시장도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英國과 사우디가 감산에 합의하면 20달러대로 반등할 가능성도 크다. 原油가격의

폭락은 산유국들 중에서도 외화사정이 나쁜 멕시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을 더욱 궁지에 빠뜨리고 있다. 반면 이들 국가들이 외채 상환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선언할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생산제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세가격으로도 15달러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 15달러대에 견디어 낼 수 있는 原油는 4천500만B/D정도가 된다.

原油 생산 코스트

(單位 : 만B/D)

배럴당 생산코스트 ($/Bbl)	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지역
2달러이하	1,500	800	中東
2－4달러	1,500	1,200	中東,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北海, 남미
4－6달러	1,000	1,000	北海, 美國, 아프리카, 南美
6－8달러	600	600	北海, 美國, 캐나다, 아시아, 南美
8－10달러	400	400	美國, 캐나다, 아시아, 유럽
10－12달러	200	200	美國, 캐나다, 유럽
12－14달러	200	200	美國, 캐나다, 유럽
14－24달러	200	100	美國, 캐나다, 유럽
計	5,600	4,500	

그러나, 美國産 원유는 15달러대에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은 적다. 美國의 WTI스파트 가격은 17달러(통상가격은 25달러)이다. 텍사스州 등에 있는 중소석유업자들은 수입원유와의 가격경쟁에 이겨낼 수 없게 되어 버린다. 그 결과 더욱 더 외화가 유출되어 美國경제는 궁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美國의 수많은 중소 유전을 경영하는 자는 옛날부터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 메이저도 이전만큼 힘이 없어졌다고 해도 엑슨의 힘은 막대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레이건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할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수입원유에 대해 과징금을 거둘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의 油價폭락의 주역인 사우디와 英國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 것인가가 앞으로의 油價전망을 점치는데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 OPEC 총회가 열린다 해도 아무런 결정을 못내리면 가격은 다시 크게 하락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대폭적인 가격붕괴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여하튼 금년은 선물시세와 실세가격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량 스파트로 판매되고 있는 두바이는 3월분 가격의 경우 1달러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1월 오만 실세가격과 3월 인도 선물시세는 실로 7달러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량은 겨우 한척분 정도이다. 단, 사우디의 네트백 방식에 의한 판매 확대로 가격하락 요인이 생겨 2월 실세가격은 상당히 낮아질 것 같다. 오히려 네트백의 등장으로 스파트 시세 쪽이 낮아졌으며, 결국 다른 국가들의 유종이 가격을 주도하게 될 것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

〈일본공업신문 2/10〉

지각없는 외제선호

뿌리썩는 경제질서